중앙교섭속보 10호

발행일 2024년 6월 19일(수) | **발행인** 장창열 | **SNS**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우리는 총파업으로 간다”

2024 중앙교섭 결렬 … 7월 10일 금속노조 총파업 예고

금속노조가 2024년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7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18일 10차 중앙교섭을 경주 일성콘도에서 열었다. 사용자 측은 4차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며 "여러 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안이 없다고 하니, 평화롭게 교섭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더는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가 없다"고 단언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경주지부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도 많고 참여 조합원도 많다. 중앙교섭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도 경주지역 사용자들이다"며 "지금까지 노력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결과를 만들 때다. 힘이 필요하면 경주지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노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결과가 아쉽다"며 "사용자 교섭대표가 68개 사업장 말씀을 했지만, 중앙교섭 결과에 금속노조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더 어려운 시기에도 노사간 자율 교섭으로 문제를 풀어왔다. 이후에 합당한 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교섭을 마무리하며 "법정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완성차가 파업 분위기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회원사들의 생각이 있다"며 "중앙교섭의 위상은 알고 있다. 타임오프 문제에 안을 내는 것에 부담이 있다. 2주 동안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7월 10일 총파업에 나선다.